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69호 HYUNBULNEWS.COM 2026년 3월 11일(음력 1월 23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대학 생활 시작은 불교와 함께" 새 학기를 맞아 대학가 동아리 모집이 한창인 가운데, 서강대 불교동아리 '혜명'이 3월 6일 교내 운동장 인근에서 신입 회원 모집 부스를 운영하며 새내기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부스에서는 부처님 말씀과 간식을 담은 뽑기 이벤트, 명상 프로그램, 염주 꿰기 체험 등이 진행됐다. 사진은 제연우 혜명 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선민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맨 오른쪽) 등이 홍보를 진행하는 모습. 글·사진=김내영 기자

韓불교 영향 아스카데라, 세계유산 등재 추진

조계종 주최 '한·일 불교문화 비교 기획'

2월 26일, 아스카데라 방문
사찰 창건에 기와 등 사용돼
백제·고구려 장인 다수 참여
7월 세계유산위서 등재 결정

일본 나라현=김내영 기자

한국불교와 깊은 역사·문화적 인연 속에 596년에 창건된 일본 최초의 본격 사찰 '아스카데라(飛鳥寺)'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추진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월 아스카데라를 비롯해 궁전 터와 고분 등을 묶은 '아스카·후지와라 궁도(宮都)' 유적군을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했으며, 등재 여부는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는 일본 불교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한국불교의 전래와 한·일 불교문화 교류의 흔적을 보여주는 역사적 현장이라는 점에서 등재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2월 25~28일 주최한 '2026 한·일 불교문화 비교 기획'에 참가한 취재단은 2월 26일 일본 나라현 다카이치군 아스카촌에 위치한 아스카데라를 찾아 동아시아 불교 교류의 연원과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배경을 살폈다.

아스카데라 주지 우에지마 호쇼 스님은 "아스카데라는 백제와 고구려의 기술과 사상이 융합된 상징적 공간"이라며 "동아시아 불교 교류사를 증명하는 중요한 유산"이라고 밝혔다.

스님에 따르면 아스카데라는 588년 소가노 우마코(蘇我馬子)의 발원으로 596년에 완공됐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본격 사찰로, 호코지·겐코지 등으로도 불렸으며 현재는 일본 진언종(真言宗) 부잔파(豊山派) 소속이다.

창건을 주도한 소가노 우마코는 당시 일본에서 불교 수용을 둘러싼 격렬한 정치적 대립 끝에 승리하면서 친백제 정책과 불교 중흥을 이끈 인물이다. 그는 불교 전파를 목적으로 대대적인 불사를 추진했고, 약 8년에 걸쳐 아스카데라를 건립했다.


일본 최초 본격 사찰 아스카데라 전경.

우에지마 호쇼 스님은 "(아스카데라는) 일본 최초로 주춧돌을 사용한 초석 건물이며 백제 장인들을 데려와 최초로 기와를 얹은 사찰"이라며 "목조건축 중심이던 일본 사찰에 전환점을 이룬 건축물"이라고 설명했다. 아스카데라에 들어간 기와만도 20여 만 장에 달한다.

실제 아스카데라 창건에는 백제에서 건너온 스님과 기술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일본서기〉에는 "백제의 불사리(佛舍利)와 함께 혜총(慧聰)을 비롯한 여섯 명의 승려와 사공(寺工) 태량미태(太良未太)와 문가고자(文賈古子), 노반박사(鑪盤博士)인 장덕백매순(將德白昧淳), 와박사(瓦博士)인 마나문노(麻奈文奴), 양귀문(陽貴文), 능귀문(悾貴文), 석마제미(昔麻帝彌) 등 네 사람, 그리고 화공(畵工) 백가를 파견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는 소가 가문이 백제와 긴밀한 외교·기술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기와 제작과 문양 구성에서도 백제 양식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스카데라는 백제뿐 아니라 고구려 영향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대웅전에 봉안된 아스카대불(飛鳥大佛)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불상으로, 높이 약 3m 규모다. 605년 스이코 천황과 쇼토쿠 태자, 소가노 우마코 등의 발원으로 시작돼 609년 구라쓰쿠리노 도리(도리 불사)라는 백제 출신 장인이 조성했다. 불상 제작에는 동 15t과 황금 30kg이 사용됐는데, 이 중 황금 15kg은 고구려 대흥왕(영양왕)이 하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본존불의 온화한 상호와 부드러운 조형에서 대륙계 불상의 특징이 드러나는데, 한반도 장인들의 참여 속에 제작된 결과로 분석된다.

10면에 계속

본지 "조세이탄광 유해 수습에 써 달라"

관음종 총무원에 기금 전달해
편집국원 십시일반 정성 모아


관음종 총무원장 도각 스님에게 여수령 본지 편집국장이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유해 수습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일본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유해 수습 지원에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이 동참했다.

현대불교신문 편집국(국장 여수령)은 3월 4일 서울 낙산묘각사에서 관음종 총무원장 도각 스님을 예방하고 편집국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도각 스님을 비롯해 총무부장 홍경 스님, 사서실장 법룡 스님, 여수령 본지 편집국장, 송종원 관음종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도각 스님은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는 아픈 역사이고 조속히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며 "하루 속히 수몰된 유해를 발굴해 한국과 일본 유가족들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관음종은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와중 현대불교신문 편집국 직원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금액을 떠나 정성에 감복했다"면서 "언론에서 힘을 모아 주니 천군만마를 얻은 듯 힘이 난다"고 전했다.

여 편집국장은 "일선에서 취재를 해 왔던 편집국 기자들도 관음종의 원력에 깊이 공감해 마음을 모으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연중캠페인을 통해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유해 수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관음종과 현대불교신문은 지난 2월 2일 협약을 체결하고 '바다 아래 남겨진 이름들-조세이탄광 유해 수습 지원 캠페인'을 연중 진행하기로 했다. 신중일 기자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유해 수습 지원 모금 계좌 : 우리은행 (재)대한불교관음종 1006-502-377562

로터스월드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

"미얀마 사원학교에 정수시설을"

아난다밋다 학교에 7번째 설치 예정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와 현대불교신문(대표 한명우)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에 함께할 후원자를 찾는다.

2024년부터 캠페인을 시작한 양 기관은 현재까지 미얀마에 정수시설 6대 설치를 완료한 상태다. 7번째 정수시설은 '미얀마 아난다밋다 사원학교'에 설치될 예정이며 최근 현지 지역 조사를 마쳤다.

미얀마 양곤 이스트 다곤 타운십에 위치한 아난다밋다 사원학교는 621명이 재학 중이다. 지하수 관정이 있지만 정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석회 성분이 대량 포함돼 있어 빗물을 모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수인성 질병에 노출된 아이들이 많아 환경 개선을 위해 스님들이 나서 알아보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설치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로터스월드는 하나의 정수시설을 최대한 많은 수혜 인원이 이용할 수 있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수시설을 개방형 구조로 설치, 인근 지역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상 중에 있다. 설치에만 그치지 않고 완공 후에도 시설 유지·보수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지역 주민과 교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소모성 물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사장 성관 스님은 "앞으로도 다양한 학교 사전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가장 정수시설이 필요하고 열악한 현장과 함께 하겠다"면서 "확실한 사후 관리를 약속하며 후원자의 기금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02-725-4277

후원 계좌 : 기업은행 636-024138-01-015 (사)로터스월드 임은호 기자

